

테마칼럼

여성세계

신체프리카

경제의 눈

문화와 양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기



김신명숙 <작가>

시절이 불안하니 말들도 어지럽다.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이후 뉴스를 접하기가 두려운 이...

전쟁의 현실을 아는가?

전쟁이라니, 전쟁이라는 두 글자가 담고 있는 구체적 현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가? 아니, '느...

흥직한 말을 거리낌없이 뱉어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들이 용서되는 것은...

아무리 남의 피 한 방울이 내 피 한 방울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보통 수준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쟁불사'...

독일 출신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최근 국내에서도 번역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책에서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총지휘한 인간도살자 아돌프 아이히만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 자라온 가정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판에 박힌 상투어 밖에 구사할 줄 모르는 말하기의 무능을 드러냈는데 이는 생각하기의 무능에서 비롯됐고 그것은 결국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이었다는 게 아렌트의 분석이다.

결국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며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악의 근원이 되는 셈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들은 전쟁불사론을 비롯해 일본 정관계와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이 흘리고 있는 핵무장론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상투적이고 흥흥한 것들이 더 많다.

악마와도 대화하라

북한은 '악의 정권'으로 타자화해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하지도 않는다. 물론 타국민은 커녕 자기 국민들이 극심한 빈곤에 오랜 세월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권 안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쏟고 또 다시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며 전쟁불사를 외치는 북한정권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나쁜 정권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무력이나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풀 수 밖에 없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더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된 북한동포들, 배고픔에 떨고 있는 북한어린이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김대중 전대통령의 말대로 필요하면 악마와도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의 바탕에는 역사사지의 자세와 인류공동체에 대한 사랑, 평화에 대한 열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나 아렌트의 말대로 정치는 '응용된 형태의 세계사랑'이어야 하니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기아차, 노사 협력으로 위기 극복해야

지난 8월 파업으로 한바탕 흥역을 치렀던 기아차 광주공장이 주력품종인 스포티지의 판매 급감과 이에 따른 생산라인 증설 보류로 또다시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출시 초기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스포티지가 경쟁 차종의 저가판매 공략과 고유가, 환율하락 등으로 최근 들어 재고몰량이 4만대를 넘을 정도로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당초 생산 규모를 연간 15만대에서 20만대로 늘리기로 한 노사합의를 지키지 못하게 됐고 노조는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51일째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광주공장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스포티지의 판매부진은 기아차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포티지 양산계획에 맞춰 생산라인 등을 확충한 240여 개 광주·전남지역 협력업체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위기사태는 시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회사 측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하겠다. 자동차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초기의 인기 만을 믿고 고용안정과 생산라인 증설을 급속 노조측과 합의한 것은 대기업 경영치고는 너무 서툴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욱이 다른 차종에 비해 유독 스포티지 시장점유율만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경영진의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기아차 경영진은 왜 광주공장에서 파업과 노조의 체용비리, 판매부진 등 각종 악재가 끊일 날이 없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경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회사가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는 통쳐야 한다. 노사가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대해 본다.

소비자 우롱하는 '담합행위' 뿌리 뽑아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세탁·주방세제 가격 인상과 거래 조건에 담합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등 4개 업체에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법인과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가 지난 1997년부터 8년여동안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4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해당 기업의 소명과정이 남아 있지만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과징금징수에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적발된 4개 업체도 연간 5천억원 가량의 시장에서 83%의 점유율을 보였다.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경쟁 대신 담합을 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다.

이들 업체의 담합수법은 치밀했다.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이전 합의가격에서 10%를 올려 새 가격을 책정했다. 또 업체의 임원이나 실무자들이 거의 매월 만나 가격 인상 등을 논의했고 관측률·점포지급 금지, 기획제품생산 금지, 할

인점의 할인행사 참여 금지 등 거래조건에도 합의했다. 담합을 이행하는 지를 감시하기 위해 공동조사까지 벌였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기업은 반성해야 한다. 현실은 갈수록 기업의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담합 등 부정한 수법을 통해 이윤극대화에만 매달려서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기업의 이미지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기업 스스로 윤리경영을 핵심가치로 내걸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제감찰'로서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담합이 횡행해온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질 수밖에 없다. 일부 세제의 가격이 5년새 46%까지 올랐는데 소비자들의 심정이 10%를 올려 새 가격을 책정했다. 또 업체의 임원이나 실무자들이 거의 매월 만나 가격 인상 등을 논의했고 관측률·점포지급 금지, 기획제품생산 금지, 할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조인종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던 할머니가 있었다. 아무런 증상도 없고 혈압 조절도 잘 되는 편이어서 외래 진료라고 해와야 그저 간단한 청진과 안부 묻는 수준이었다. 그러던 할머니가 어느 날 "소화가 안되고, 배가 더부룩하다"며 진료실에 오셨다. 간단한 진찰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져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1달 전에 다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했다"며 극구 사양했다. 늘 건강했던 환자이고 종합검진에서도 정상이었다고 해서 위장약을 처방했다. 그런데 다음 진료일이 됐는데, 눈에 띄게 쇠약해 보이는 것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합검진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물었는데, "동네로 오는 이고 검사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유방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 위장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 등이 추가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하러 오는 환자들은 일반 혈액검사와 흉부 사진 등만 검사하고도 종합적인 모든 검사를 마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검진내용을 안내하는 검진표에서 '대장암 검사'는 대개 대변검사가 전부이다. 대장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변검사뿐 아니라 대장내시경이나 대장조영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변검사로는 조기 대장암을 발견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와 긴밀히 상의해서 '혹시 빠지는 항목은 없는지'를 잘 체크해야 한다. 종합검진은 만 16세 이상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령에 따라 필요없는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검사 항목들이 빠져있을 수도 있다.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의사가 검진하기 때문에 사전 상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 건강검진은 검진받고자 하는 사람의 나이와 성별, 가족 병력이나 생활 패턴 등을 확인한 후 꼭 필요한 검사만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일생을 살며 '주기'를 몇 차례 넘긴다. 나이에 따라 건강 목표가 다르고 중요한 건강 문제나 사망 원인이 다르다. 제대로 된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삶'을 지키자. <광주씨티병원 원장>

컨닝 안하고 혼자 실력으로 시험 치를 순 없을까 대학 강의실 책상의 경우 원래 색깔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생들이 시험 전 개일같이 적어 놓은 컨닝 행위 때문이다. 수년 전 적어 놓은 것부터 시험기간이 최근에 적어놓은 것까지 은통 시켜왔다. 학점이 취업과 유학 등에 갈수록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되면서 캠퍼스에 학점지상주의가 만연한 지 오래다. 하지만 노력이나 인연관으로 얻어진 학점이 과연 그 사람을 뛰어난 인재라고 증명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거리낌 없이 답안을 적어 놓은 책상은 한개인의 것이 아닌 다른 학생들, 미래의 후배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인제가 되는 길은 양심에 뒤흔린 행동을 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이 뒤따라야 가능한 것이다. 책상에 더러운 양심의 흔적을 지우며 깨끗이 지워버릴 순 없을 까. <주연실·광주시 동구 신수동>

독자마당 비엔날레 직원의 사소한 잘못으로 전체 이미지 나빠져서야 지금껏 두차례의 비엔날레 때 매년 그 안 내문을 보고 물품보관소에 애원했을 말겨웠을 때. 올해도 지난 추석 기간동안 비엔날레를 찾아 가족 관람권(4인기준 2만4천원)을 구입한 뒤 제1관람실을 찾았는데, 변함 없이 같은 문구가 입구에 붙어 있었다. 항상 하던대로 물품보관소에 애원했을 말겨웠는데 "애원장은 맡아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제1 전시실 앞에 써있는 안내문을 따라 왔는데 무슨말이냐"고 물어보니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니 그제서야 해당 사무실 여기 저기로 전화를 해보는 것 같았다. 그래도 애원장은 맡지 않는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해당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항의했더니 여직원이 나오더니 관람표를 나눠주듯 가져가면서 "내돈으로도 그까진 2만4천원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며 뒤돌아서서 서는 것 아닌 가. 이런 상황을 겪자 사무실 직원에게 불손하다며 항의했다. 그런데 "전시실 어디에 그런안내문이 써있냐"며 되묻는 등 안내문구가 써있는것조차도 모르는 듯했다. 관람권을 나눠주듯 가져간 그 여직원은 제1전시실 앞으로 가더니 아예 안내표를 뜯어 가져왔고 잠시 주춤하더니 "죄송하다"고 했다. 비엔날레가 개막된 뒤 진행을 맡아왔다는 직원들이 행사장에 붙어있는 기본적인 안내문구가 모를 정도로 근무해서 되겠는가. 또 잘못된 진행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관람자에 대한 관계자들의 태도도 잘못됐다. 작은 식당에서조차 '진절'과 겸손의 자세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기본 자세다. 비엔날레 진행을 돕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시에서 과연 직원인가. 광주비엔날레는 시민의 것인가 아니면 행사 진행자들의 보너스 상품인가. 단순히 '보기싫으면 돈 돌려줄테니 가라'고 하는 그 여직원같은 근무자가 얼마를 더 있었는지 궁금하다. 내겐 비엔날레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지역행사가 돼버렸다. <이혜경·인터넷독자>

신문 미담기사 많이 발굴해 보도 했으면 전복 부안에 있는 친정 부모님댁에 다녀왔다가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다. 4개월전 채소 중간도매상이라는 한 젊은 남자가 200평 정도의 밭에 고구마를 심으려던 아버지에게 "내가 책임지고 팔아줄테니 파를 심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믿고 부모님은 파를 심었고, 90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시장에서 파값은 폭락했고 부모님은 "돈을 돌려줘야 할 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했다고 한다. 다행히 파값이 올라 젊은이가 오히려 이익금 15만원을 더 쳐주겠다고 찾아왔다고 했다. <황은숙·광주시 남구 구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無월광(無月光) 때만 가능하다. 햇불을 만든 뒤 간조 때 갯벌로 나갔다가, 들물(밀물)을 따라 빠져나오면서 새 물을 먹으러 구멍 밖으로 나오는 나치를 손으로 '줍는' 것이다. 잠가찰이나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은 잠하지 않는다. '햇 나치'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고, 재미있다. 짧은 시간에 여러 점(1점=20마리, 4~5만원)을 건질 정도로 벌이가 쓸쓸해 수백여 명이 몰린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는 갯벌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철쭉 같은 어둠 속에서 잠시 간 빛밖에 노출되면 방향감각을 잃을 수도 있다. 재빨리 불을 끄고 물을 찾아야 하지만,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갈팡질팡하다 의사한다. 며칠 전, 신안 갯벌에서 1명이 죽고 일가족 3명 통어(漁法)도 있다. 신안과 무안, 함평 등지에 남아있는 '햇 나치'(햇 나치·햇 나치)가 그것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명맥을 이어온 이 방식은 3~11월까지 매달 음력 8일과 23일, 조부가 가장 약한 조금 후 4~5일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78)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618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